

## 自己決定과 參與로의 초대： 獨逸 大學에서의 신입생 안내와 지도

鄭 暎 根

(延世大 講師, 教育學)

### 1. 獨逸 大學의 특성과 新入生

독일 대학에서의 신입생맞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한국의 대학과 그곳의 대학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들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이 대체로 英·美 대학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 대학은 중세 대학의 전통적인 특성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9세기 이래 학문의 研究와 教授를 대학의 使命으로 삼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 대학의 학사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라는 거대한 행사는 독일의 대학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대학의 입학행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신입생 맞이가 대학의 커다란 행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일이란 한국의 경우처럼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친 뒤 온 가족과 친지들이 더불어 나누는 합격의 흥분이 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대학의 연례행사와는 다르다.

성적에 의한 경쟁을 통해 입학허가를 받는 隣學科 같은 몇몇 인기학과를 제외한다면 정상적

인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국가시험인 ‘아비투어’를 거쳐 거의 대부분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모든 대학이 동등한 평가를 받는 국립대학인지라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희망학과에 입학을 신청하면 되고 입학시기도 본인의 개인적 상황에 맞추어 학기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대학교에서 저 대학교로 도시를 옮겨가며 轉學을 할 수 있으며 轉科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在學 學期數를 넘겨야 한다는 규정이 말해주듯 학업을 마치고 대학을 떠나야 하는 시기 역시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대학의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디플롬(Diplom)이나 국가시험(Staatsexamen) 또는 석사학위(Magister)를 취득하고 학교를 떠날 때에 졸업식이라는 거창한 행사가 없다.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증명서를 단과대학 사무실에서 받을 뿐이다. 취업시에는 전국 모든 대학교의 학위증명서들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그렇다면 독일의 대학에서는 학업을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물론 독

일의 대학 역시 신입생들을 위한 배려를 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와는 그 내용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전공학과가 우리처럼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지 않고 또 각 학과의 입학정원이 일 년에 몇 명씩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들을 학년별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가 하면 대학에서의 학업과정을 거의 대부분 학생 스스로 결정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신입생이나 몇 학년생이라는 칭호보다는 學業初年生(Studienanfänger), 低學期生 및 高學期生이라는 명칭이 통용된다. 입학과 졸업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입학한 사람이 먼저 졸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入學年度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는 다르다. 전공학과에 대한 소속감에서 나오는 연대의식이 약하고 先·後輩라는 사회-정서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學期數나 年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학업상의 동료라는 의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다.

결국 한국의 대학에서 말하는 신입생맞이나 지도는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업초년생과 다른 대학교에서 새로 전학온 학생들이 바뀐 생활환경과 대학의 학업규정 및 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대학은 모두가 국립이지만 학업규정이나 전공분야의 학업내용은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분위기와 학생문화 또한 각기 다르다.

## 2. 新入生 指導의 내용과 성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훈육과 규제가 다른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 학업초년생의 경우 진리탐구와 미래의 직업세계를 위한 준비기관인 최고학부가 낯설기는 한국이나 독일 모두 같을 것이다. 더구나 대학진학과 더불어 대개는 부모 곁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독일의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들 신입생에게 학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대학생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학차

원의 안내행사와 사업은 다양하다. 이를 편의상 몇 가지로 분류하자면 學業 및 學事에 관한 사항, 學生活動 및 學窓生活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생의 厚生과 福祉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 1) 新入生の 學業設計를 위한 안내와 지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후배간의 位階나 학년에 따른 구분이 없는 독일의 대학에서 신입생은 학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안내와 지도를 스스로 찾아다녀야 한다. 주어진 규정에 의해 대학에 등록을 마친 다음 신입생들은 단과대학과 전공학과 및 두 분야의 부전공학과에서 매학기 초에 제공하는 학업안내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분주히 학과 사무실과 게시판들을 오가며 해당학과의 학업안내 일지와 장소를 메모한다.

학기 시작과 더불어 진행되는 이 행사는 신입생들이 '義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學業案内'(obligatorische Studienberatung)로서 참석자들은 안내와 지도를 받았다는 확인증을 받게 된다. 이 학업안내는 대학과 학과에 따라 상이한데 몇 시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주일 내내 계속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세미나 수업의 종류와 수 그리고 치러야 할 시험의 종류와 등록절차 등등이 안내의 일차적인 내용이다. 그런 다음에는 학사운영 및 제도 등을 알려 준다. 학생 개인에 대한 학사업무가 컴퓨터화 되어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학당국에 의한 學期登錄 및 成績管理業務가 따로 없기에 학생 본인이 스스로 학기 등록과 성적을 관리해야 하는 독일의 대학에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입생들에게 설명하고 주지시키는 것이다.

전공 및 두 분야의 부전공학과에서 실시하는 학업안내를 찾아다니는 일은 분주할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의 머리 속을 조금은 어수선하게 할 정도이다. 이와 같은 학업안내의 핵심 내용이란 소책자로 엮어져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단과대학의 學業規定(Studienordnung)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과 각 학과의 學業案内冊의 내용을 질의응답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일

이다.

학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학문추구를 위한 학술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각 학과마다 담당교교(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강의를 담당하면서 교수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이다.)나 교수가 배정되어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있는 면담시간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한다. 그러나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조언과 안내는 일반적으로 초급 세미나 수업과 각 분야의 入門的 性格을 띤 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입생일지라도 강의와 세미나 수업 뒤에 교수와 대담을 하거나 면담시간에 교수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몇 학기생 또는 몇 학년생들이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조언을 듣는 기회란 결코 없다. 학업은 철저하게 학생 각자의 문제이기에 강의와 세미나 수업에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하면서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학업설계를 하는 일은 초년생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강의나 세미나 수업에서 출석을 확인하는 일도 없다. 학업규정을 참고하여 학점이수와 시험등록 계획 등을 자발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 2) 學生會와 生活共同體의 신입생 안내행사

독일 대학의 학생회는 한국 대학의 그것과 형태와 조직에서 다르다. 한국의 대학에서처럼 학생회가 신입생을 맞이하여 학교의 역사와 학업에 대한 소개에서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일은 없다. 이는 대학입학이 연례행사가 아니며 입학식이 학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음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교 학생회의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회(Studentenparlament)나 집행기구인 일반운영위원회(AStA)가 아닌 각 학과 단위의 학회(Fachschaften)가 신입생맞이에 개별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학회에서는 신입생들의 전공분야 학업적응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학회 사무실에서 한다. 그리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학회가 학기 시작 직전이나 직후에 신입생들을 위한 안내모

임을 개최한다. 이들 내지 사흘간 휴양지나 도시의 근교에 있는 숙박 및 회의시설에서 열리는 이 모임에서는 학교의 강의실 등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학업초년생들에게 학생의 차원에서 보는 대학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된다. 학회활동에 대한 소개와 참석자들 사이의 친교 역시 이 모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신입생의 전공 또는 부전공에 해당하는 학문의 소개와 안내를 위해서는 학업안내를 담당하는 조교나 실무자가 동행하여 주제발표,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학과 학생이나 신입생 숫자에 비할 때 학기 초의 이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지극히 적은 편이다. 신입생때부터 스스로 교수, 강사들의 면담시간에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논문과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며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이 독일 대학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중앙 도서관과 학과 도서관, 중앙 전산센터와 단과대학 전산실 등의 대학시설들은 매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위해 시설이용 안내를 실시한다.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관심있는 학생들이 공고된 안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모이면 10~20명씩을 단위로 해서 시설물과 이용방법 등이 소개된다. 전산화되어 있는 중앙 도서관과 일부의 학과 도서관의 경우, 학기 초의 시설이용 안내는 신입생들이 학업을 효율적으로 충실히 해나가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된다.

독일의 대학에는 기숙사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많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기숙사를 거점으로 하여 시작한다. 학과나 전공에 대한 소속감이 느슨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학업과 학창생활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라는 생활 공동체는 거대한 대학 안에서의 익명성에서 벗어나 서로가 친밀하게 접하고 대화하는 장소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대학의 기숙사에서는 새로 들어온 동료들을 위해 학기 초에 친목모임을 열기도 한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구교나 개신교 계통의 기숙사에서는 儀禮化된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신입생들은 이

러한 모임 등을 통해 高學期生의 경험을 들으면서 학업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간다.

學友會(Burschenschaft) 같은 친목단체에서는 매학기초 신입회원을 모집하는데, 그들은 전공분야의 편협한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각 학우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문화적인 활동 또는 스포츠 등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대부분의 학우회는 자체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신입생 회원들에게 숙박시설을 무료로 대여하기도 한다. 기민당에서 녹색당에 이르는 청년학생 정치단체들 역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이들 단체는 신입생들이 각 단체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민주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북돋운다.

결국 한국의 대학에서처럼 총학생회나 전공학과 학회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과 교수들과의 집단면담 시간 등이 없는 독일의 대학에서 신입생은 학업과 대학생 문화의 참여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안내와 지도의 기회를 스스로 인지하여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 3) 新入生の 厚生 및 福祉에 대한 안내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부모 곁을 떠나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까닭에 학업초년생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문제는 학업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의 학생처(Studentenwerk)는 학생들의 후생과 복지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바, 신입생이나 새로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주거공간 확보에 도움을 준다. 학생처는 대체로 대학이 위치하는 도시와 그 주변 여러 곳에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대학에 등록하기 전에 서면으로 기숙사의 방을 신청하게 되는데 학생처의 기숙사 담당부서는 매학기 신입생들을 위한 방을 배정한다. 학생처는 또한 기숙사에 방을 얻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개인 집에 방을 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임대소개 사무실을 운영한다. 대개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대학도시

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기숙사와 개인 집의 방을 구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시간과 경비는 물론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 주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다.

학생처가 대학의 위임을 받아 신입생들에게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해주는 또다른 분야는 생활비 보조이다. 독일의 대학이 국립이며 등록금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래도 학생들이 독립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려면 매달 일정한 생활경비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형제들이 여럿이거나 부모의 월수입이 어느 수준 이하일 때에는 연방 교육촉진법(BAföG)에 의해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5학기때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초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조건 그리고 절차를 알아야 한다. 학생처는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생활비 보조에 대한 제도를 소개하고 상담하여 조언을 한다.

### 4) 外國에서 온 新入生들의 학업 및 생활안내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외국 학생들이 독일의 각 대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매학기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 수백 명이 새로 등록한다. 비록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에 처음 발을 디딘 말 그대로의 신입생은 아닐지라도 문화와 학제가 다른 독일에서 생활에 적응하면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박사과정에 등록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또다른 의미에서 신입생이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國際教育局(Akademisches Auslandsamt)이 설치되어 있다. 이 부서는 외국 학생들에게 학업에 관한 문제에서 생활 및 복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안내를 담당한다. 연방 교육촉진법에 의한 생활비 보조를 제외하고는 독일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후생 및 복지에 대한 사항들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외국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생계 보조금이나 장학금이 제공된다.

외국 신입생들이 독일생활과 대학문화에 신속

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국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은 여러 가지이다. 대학에 따라 각기 다양한 특색을 지니는 이러한 안내활동으로는 먼저 개강 전에 실시하는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 참가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차편으로 근교의 산장이나 숙박시설에 모여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조언을 듣고 의문사항을 질문한다. 가벼운 주제의 강연과 산책, 주변의 볼거리 탐방 등도 곁들여진다. 대학에 따라서는 외국 학생들이 독일에 도착하여 국제교육부에서 입학수속을 시작할 때부터 몇 사람당 독일 학생 한 명을 배정하여 개강 전까지 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독일어와 생활풍습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신입생들을 위해 독일 가정과의 결연을 주선하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독일 사람들이 해당 기관에 자발적으로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 외국 학생은 성탄절 휴가기간(2주일) 동안 국제교육부가 중개한 독일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숙식을 같이하면서 생활언어와 사고 및 행동양식 등을 습득한다.

외국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단과대학이나 전공학과 역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상담을 전담하는 요원(교수나 강사)을 두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온 신입생들이 언어에 서툴고 自國과는 다른 學制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업내용을 독일 대학의 기준에 견주어 인정해주고 이곳에서 시작하는 학업과 연계를 지어주기 위해 이 제도가 운영된다. 그러나 몇 학기가 지나 독일의 학업생활에 익숙해지면 외국에서 온 학생들 일지라도 필요한 요건들을 해당 교수 및 강사나 학교직원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에서처럼 학과나 단과대학의 행정요원이 科나 大學 차원에서 학생 개개인들의 학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학년별 지도조교와 교수조차 없는 이곳에서는 외국 학생들 역시 본인이 일일이 해당 부서나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학업내용이나 학사행

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성숙한 學業生活을 위한 대학의 신입생 안내

독일 대학의 신입생맞이는 한국 대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의 신입생맞이라는 차원에서 독일의 경우를 논할 수 없다. 입학식이라는 의례적인 절차의 문제보다는 학문연구와 전수가 대학에서 강조되다보니 학사일정은 자연히 강의 및 세미나 수업계획과 학생들의 학업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짜여진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연례적인 開校紀念 行事나 학생들이 주관하는 대학축제 같은 것도 없다. 창립 500주년 혹은 600주년 같은 개교기념 행사 정도가 대학의 차원에서 준비되고 치러질 뿐이다. 이러한 독일 대학에서 신입생맞이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특징은 대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에 나타난다.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진학예정자들은 원하는 대학교와 전공학과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입학과 졸업시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轉學이나 轉科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일의 대학생들이 여러 대학교를 거치면서 다양한 학술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知的 성장을 추구하는 일은 흔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입학과 졸업이라는 행사 그 자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다.

둘째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에 대한 案内와 指導는 學業 및 學班에 관한 내용과 厚生과 福祉에 관한 사항이 있다. 독일에서는 특정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의식이나 전공학과가 같은 사람들 간의 심정적인 유대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단지 학업상의 평범한 동료일 뿐이다. 다만 학문을 계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스승과 제자 그리고 學派라는 精神的인 유대관계와 전통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대학당국이 신입생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란 학업규정을 알려 주고, 능력에 맞추어 개성적인 학업을 설계하도록 안

내하더, 후생과 복지를 통해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로 외국에서 온 신입생들에 대한 학업안내와 생활적응을 위한 준비는 독립된 담당부서를 통해 효율적으로 한다. 國際教育局의 안내와 지원은 외국 학생들이 학제가 전혀 다른 독일에서 학업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 대학에 특유한 이런 학사업무의 기본 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와 대외정책상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독일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在學期間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과연 독일 대학이 매년 특정한 기간에 신입생을 선발하여 입학식을 거행하고 국가나 대학이 정한 기간 안에 학업을 마치게 하여 성대한 졸업식을 통해 사회로 내보낼 것인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독

일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업설계를 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개혁을 시도할지라도 학생들의 학업상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란 특정한 지식의 전달과 주입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지식을 인간의 총체적인 삶과 연계하여 습득하도록 하며 또 개별적 인격이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최선의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격려하고 조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 및 중등교육 기간은 부모와 학교 그리고 사회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기성을 발현시키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은 독립된 사회 구성원이 된 신입생들이 학문탐구와 미래의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자율과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知性的 場인 것이다. ■